

VOICES SEEN, IMAGES HEARD  
**보이는 목소리, 들리는 이미지**

린다 C.H. 라이 | 홍콩, 중국 | 2009년 | 28분 | 트랜스미디어스케이프  
 Apr 11 / AR5 / 17:30 Apr13 / AR4 / 11:30



역사를 모아,  
 나를 들여다 보기

린다 C.H. 라이

Voices Seen, Images Heard 목소리는 들리는 것이고 이미지는 보이는 것이라는 통념을 전복시켜 관객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려고만 하지, 느끼거나 들으려 하지는 않지요. 저는 이미지와 오디오가 공존하며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작업을 해요. 제목에 그러한 제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1930's 작품 속에서 홍콩의 과거를 묘사하기 위해 1930년대를 집중 조명했어요. 사실, 1930년대 초에 홍콩에서는 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았죠. 하지만 1935년을 기점으로 '쇼브라더스'라는 영화 제작사에 의해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1939년은 홍콩 영화사에 있어 주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를 많이 이용해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콩의 과거를 서술할 때 1930년대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감독이자 역사학자로서 그 당시의 영화나 글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역사적 파편이라도 그것을 이용하면 홍콩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Slow & Fast Motion 실제 영화에서 사용했던 많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화면의 속도감을 조절해서, 그 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두려고 했어요. 많은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이나 패스트 모션을 사용한 이유도 관객들이 해당 장면을 집중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페리선 위에서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어떤 장면을 말하는지 알겠네요(웃음). 항구도시로 개발되는 홍콩의 모습을 페리선 위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슬로우 모션과 함께 역방향으로 재편집해 강조해봤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웃음). 단지 관객들을 위한 재미 정도로 설정해뒀던 장면이었죠. 그래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도 홍콩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조차 여러 의미에 이관 가능한 장면에서조차 여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ollage Film 제 생각엔 이 작품은 영화라기 보다는 일종의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현대미술 중에서 도 20세기에 주로 사용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어요. 일반적인 콜라주 아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단편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작품에 모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죠. 이번 작품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제가 수집한 다양한 스틸 이미지를 애니메이션과 같은 무빙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 때문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Collecting 이 작품은 1934년에 당대 영화계에서는 홍콩의 역사를 어떻게 담고 있는가에 대한 제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위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영상과 사진들을 수집하고 작업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네요. 1939년 당시, 한 네덜란드인이 홍콩의 영상과 사진 기록을 남긴 것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자료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작업하는 중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워요. 과거의 자료에는 여성이라든가 노동자, 외국인들 찍은 사진 등이 적었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흥미로워했던 것들에만

